

삼성바이오, 송도 제3캠퍼스 조성… 차세대 모달리티 강화

7조 투입해 송도 11공구 부지 매입
2030년까지 1만명 고용·12조 효과
기존 캠퍼스와 연계해 생산 효율 ↑
CGT·백신·펩타이드·ADC 등 확대
2032년까지 8공장으로 생산력 강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조원이 투입되는 '제3바이오캠퍼스' 조성을 위한 초석을 닦았다. 초격차 생산 역량을 갖춘 핵심 기지를 확충하고,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각광받는 모달리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8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계약 체결을 맺었다. 부지 규모는 18만7427㎡이며, 매입 대금은 2487억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부지에 제3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제3캠퍼스 조성에는 총 7조원 가량이 투입되며 기대 효과는 오는 2030년까지 1만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과 약 12조원 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바이오캠퍼스 조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제3캠퍼스는 제1캠퍼스, 제2캠퍼스 등과 인접해 있어, 생산 공정, 품질관리, 차별화 기술 등 의약품 제조 전반에서 기존 캠퍼스와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생산 효율 극대화, 고객 프로젝트 리드타임 단축, 글로벌 규제 대응력 향상 등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기존 항체 의약품에 비롯해 최근 CDMO 분야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세포·유전자치료제(CGT),

항체 백신, 펩타이드 등 다양한 모달리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생산 시설이 마련된다.

항체 의약품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CDMO 사업을 mRNA, 항체·약물 접합체(ADC), 오가노이드 등으로 다변화함으로써 다양한 고객사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항체·약물 접합체(ADC) 의약품 생산의 경우, 올해 초부터 전용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전용 시설은 4층 구조로 설계됐으며 500L 규모의 접합 반응기 및 정제 1개 라인을 갖췄

다. 항체부터 접합까지 개발 및 생산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2027년 1분기에는 ADC 완제의약품(DP) 전용 라인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제1캠퍼스의 1~4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 제2캠퍼스의 5공장도 램프 업을 단계적으로 이뤄내고 있다. 1공장부터 5공장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총 생산역량은 78만4000L로 세계 1위 수준이다.

아울러 오는 2032년까지 6~8공장으로 설비를 확대해 제2바이오캠퍼스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총 132만4000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 초격차 생산 규모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인적분할을 통해 ‘순수 CDMO 기업’으로 전환을 완료함과 동시에 이번 계약을 통해 새로운 모달리티 진출을 통한 차세대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글로벌 톱 바이오 기업’이라는 회사의 목표에 더욱 박차를 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라네즈 ‘로즈잼’ 선보여

쿨톤 라인 확장·민스코 협업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뷰티 브랜드 라네즈에서 ‘글레이즈 크레이즈 틴티드 립 세럼’ 신제품으로 ‘로즈잼’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로즈잼은 글로벌 시장 중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다. 고급스러운 뮤트 쿨 로즈 핑크 색상으로 발색에 따라 쿨톤과 뉴트럴 톤 모두에 활용 가능하다. 또 프랑스식 디저트 ‘이스파한’에서 영감을 받은 향이 더해졌다.

글레이즈 크레이즈 틴티드 립 세럼 ‘로즈잼’은 한국을 시작으로 세포라를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도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특히 라네즈는 신제품 출시를 통해 기존 글레이즈 크레이즈 틴티드 립 세럼의 제품군을 ‘쿨톤 팔레트’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국내 대표 뷰티 크리에이터 ‘민스코’와 제품 개발을 협력했다. 민스코는 유튜브에서 7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美 PBM 등재로 ‘골질환 치료제’ 경쟁력 입증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처방집 등재
2026년 선호약 지위로 경쟁력 강화
PBM·오픈마켓 공략해 시장 확대

셀트리온이 미국 3대 처방약급여 관리업체(PBM) 중 한 곳과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 처방집 등재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026년 1월부터 해당 PBM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사보험 처방집에 등재 적용되며 우선 처방이 가능한 선호의약품 지위까지 확보했다.

특히 이번 계약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데노수맙 성분 바이오시밀러 가운데



스토보클로(성분명: 데노수맙), 오센벨트(성분명: 데노수맙) /셀트리온

데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만 유일하게 등재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셀트리온 측은 “미국 제약 시장에서 핵심 영향력을 가진 3대 PBM에서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료진과 환자의 제품 신뢰도 및 처방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다른 두 곳의 대형 PBM과도 처방집 등재 계약 체결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각 PBM들이 관할하는 사보험 영역에서 오센벨트에 대한 등재 계약은 이미 완료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스토보클로의 추가 등재 계약만 남은 상태다.

PBM 계약과 별개로 셀트리온은 미국 데노수맙 시장에서 약 30% 규모를 차지하는 ‘오픈마켓’도 집중 공략한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측은 “오픈마켓은 보험사나 PBM의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아 자체 영업력과 제품 경쟁력이

약하면 공략하기 힘든 채널”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 미국법인 토마스 누스비켈 최고사업책임자(CCO)는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의 대형 PBM 등재가 빠르게 완료됨에 따라 미국 골질환 환자들에게 고품질의 바이오 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며 “지금까지 구축한 인적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 골질환 치료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나가면서 제품 영향력 확대를 통한 실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라네즈 ‘글레이즈 크레이즈 틴티드 립 세럼’ 신제품 ‘로즈잼’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CGV

아바타 신작 기술관 상영

SCREENX·4DX로 몰입감 강화

CGV가 12월에 시네마틱 경험을 극대화할 ‘아바타: 불과 재’를 비롯해 액션·애니메이션·클래식 명작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기술 특별관에서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12월 17일 개봉하는 ‘아바타: 불과 재’는 CGV 기술 특별관 전 포맷으로 상영한다. SCREENX에서는 판도라의 확장된 세계관과 경이로운 비주얼을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판도라의 광활한 경관과 새로운 ‘재’의 부족과의 육지와 바다를 넘나드는 공중 전투 장면이 양옆의 스크린으로 펼쳐져 실제 전장 한가운데 있는 듯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4DX에서는 격렬한 전투와 비행 액션을 모션 체어의 진동과 바람·물·공기 등의 효과와 함께 체감할 수 있으며, 판도라의 다양한 환경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SPC, 말레이시아 셰이크쉐 4호점 오픈

쿠알라룸푸르 파빌리온 KL서 선보

SPC그룹이 말레이시아 셰이크쉐 4호점 파빌리온 쿠알라룸푸르(Pavilion KL)점’을 오픈했다.

이 매장은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대표 번화가인 부킷빈탕(Bukit Bintang)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파빌리온 쿠알라룸푸르 1층에 160석 규모로 자리 잡았다.

파빌리온 쿠알라룸푸르는 700여 개의 패션·뷰티·다인링 매장이 입점한 말레이시아 대표 랜드마크로,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가 입점해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핵심 상권으로 꼽힌다.

셰이크쉐 파빌리온 쿠알라룸푸르점에서는 매장 한정 메뉴를 선보인다. 프랑스식 베이르네즈 소스와 허브 버터,

스위스 치즈 등 프리미엄 재료로 풍미를 더한 ‘프렌치 고메’ 버거와 로컬 감성을 담은 ‘콘크리트(바닐라 커스터드)에 다양한 토핑을 담은 시그니처 디저트’ 제품 2종을 출시한다. 불에 구운 코코넛에서 영감을 받은 ‘코코바카’는 코코넛 솔티드 캐러멜·초콜릿 청크 쇼트브레드에 코코넛 꽃으로 만든 골라멜라가 설탕을 더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한국과 싱가포르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도 셰이크쉐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말레이시아 고객들에게 셰이크쉐이 추구하는 ‘파인캐주얼’ 콘셉트의 다양한 메뉴와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문화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필리밀리, 올리브영 어워즈 미용소품 1·2위

수상기념 엽기떡볶이 협업 한정판 선보

CJ올리브영은 뷰티를 전문 브랜드 필리밀리가 ‘2025 올리브영 어워즈’ 미용소품 부문에서 1·2위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올리브영 어워즈는 지난 1년간의 1억 8000 건의 고객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상품을 부문별로 선정하는 연말 결산 행사다.

필리밀리 대표 제품인 ‘히팅뷰어 와이드핏’과 ‘아이브러시 프로컬렉션(5종)’은 각각 미용소품 1위, 2위에 올랐다. 히팅뷰어는 속눈썹 뿌리부터 탄탄하게 컬링을 잡아주는 기능을 구현한 소품이다. 아이브러시 프로컬렉션은 메이크업 단계별로 필요한 핵심 브러시로 구

성됐고 실용성, 완성도, 가성비 등을 모두 갖췄다.

필리밀리는 이번 수상을 기념하며 동대문엽기떡볶이와 협업한 이색 한정판을 선보인다. 파티 음식을 대표하는 엽기떡볶이와 파티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필리밀리가 만나 고객에게 풍성한 연말 파티 경험을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우선 ‘필리밀리 히팅뷰어 와이드핏’ 기획세트에는 노즐류 포인트 속눈썹, 동대문엽기떡볶이 공식 캐릭터 여비더기 스티커 등을 담았다. ‘필리밀리 아이브러시 프로컬렉션(5종)’은 레드 색상 케이스로 새롭게 제작하고, 메추리알에 소영감을 얻은 디자인을 적용한 퍼프를 증정품으로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